### 러시아 수입차 시장

## 현대기아차 7년연속 1위

현대기아차가 러시아의 수입차 시장에서 7년 연속으로 판매 1위에 올랐다.

유럽기업인협회(AEB)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 들어 11월까지 러시아에서 작년 동기(12만8808대) 대비 35.3% 증가한 17만4224대를 팔아 수입차 부문에서 누적 판매량 1위를 달렸다.

이는 14만181대로 2위를 기록한 GM보다 3만3대 이상 많은 것이다.

이로써 현대기아차는 2004년 쟁취한 러시아 수입차 시장 판매 1위 자리를 7년째 이어가게 됐다. 단일 브랜드로는 기아차가 올 1~11월 9만6545대를 팔아 작년 동기 대비 55%의 신장률을 보이며 2위를 사실상 확정했다.

지난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에서 기아차는 1위인 시보레에 불과 4000여대 뒤져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11월에 시보레가 기아차보다 3000여대를 더 팔아 막판 뒤집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시보레는 올 들어 11월까지 10만3681대를 팔았다. 르노와 포드가 각각 8만5058대, 7만8695대를 팔아 3, 4위를 달렸고, 현대차는 7만7679대로 5위에 랭크됐다. /연합뉴스

# 금호고속 '64년 무분규' 깨졌다

## 3일간 시한부 파업 … 창사 이래 처음

## 회사측 징계 방침에 노조 2차 파업 불사

금호고속의 '64년 무분규' 전통이 깨졌다. 지난 18일 새벽 4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금호고속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벌이면서다. 노조는 이번 시한부파업을 20일 오전 10시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파업이 끝나도 금호고속은 파업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해 대규모 징계를 예고하고 있고, 노조도 2차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19일 금호고속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금호고속지회가 18일 새벽 4시 파업에 돌입, 20일 오전 10시까지 시한부 파업을 벌이고 있다. 금호고속지회는 파업 이틀째인 19일 오전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노조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게 노동탄압 중단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가두행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사측 관계자들이 충돌해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금호고속지회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주말과 휴일 직행버스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금호고속은 이번 파업으로 직행버스 433대 중 60대가 멈춰서 광주~목포, 광주~해남 등 전남지역 44개 노선 102회 운행 감축에 들어갔다.

사측은 광주지역 운전원 630명 가운데 127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일부 노조원들은 지방에 차량을 놓아둔 채 광주로 돌아와 갑작스런 운행 차질을 빚기도 했다.

사측은 이후 파업이 확대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일부 노선을 다른 직행버스업체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측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결정을 들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배차 거부, 결근, 차량 유기 등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지회는 "법원 판결에 걸맞게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사측이 노조원을 징계할 경우 2차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금호고속 노사는 지난 7월 금호고속지회 설립 이후 '복수노조 인정' 여부를 놓고 5개월째 법리적·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해 일부 노선의 버스가 멈춰 서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간 강경대치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내년 6월 말까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 강성 이미지의 고착화 마저 우려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8일 오후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 노조원들이 광주시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가진 뒤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코스피 2000, 내년을 준비하라!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미국 주요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코스피지수는 20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자문사 등으로의 자금 유입도 가열차다.

다만 코스피지수의 2000 돌파에도 아쉬운 부분은 종목별 차별에 따라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과 국내 기관, 자문사 등이 대부분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 종목이나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투자자 대부분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12월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2조6000억원 이상을 순매수했는데, 이 중 대형주에 대한 매수 규모가 전체의 90%(2조4000억원)가 넘는다. 이에 따라 가급적 중·대형주 중심의 장세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주택지표 등 경기지표의 호전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지수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는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일시적인 숨 고르기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는 속도에 대한 부담인 만큼 조정이 있더라도 종목별 조정이나 과열 해소 정도의 흐름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적 과열권에 진입한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의식하고 차익실현에 나서기보다는 쉼을 이용하여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2011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에서 코스피 2000 시대를 겨냥한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IT와 은행은 턴어라운드 기대가 유효하므로 보유하는 데 무리가 없고, 랩어카운트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주도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또 건설 및 정유, 철강주, 유통주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 볼만하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아시아나 국제선 탑승객 1000만명 돌파

###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국제선 탑승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탑승객이 예상보다 80만명 가량 많은 1048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연간 국제선 탑승객 최다 기록은 2007년의 862만3594명이었다. 아시아나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1000만명 돌파를 기념해 '고객 사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OZ501편을 이용해 파리로 출국하는 최미경(45) 씨에게는 1천만번째 국제선 승객 당첨으로 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 1매를 증정했다. /연합뉴스

### 기업 노무 담당자 75%

## "내년 노사관계 불안"

국내 주요 기업 노무 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주요 회원사 230곳의 노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을 설문조사한 결과 51%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다소 불안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노사관계가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는 답은 24%였고, 안정될 것이라는 답은 4%에 그쳤다.

내년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복수응답)으론 7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45%), 사내하도급·비정규직 투쟁(20%), 노조전임자 급여금지·타임오프 교섭(18%)이 꼽혔다. /연합뉴스

# 정부 난색 속 분리매각 가능성

##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光銀 어떻게 될까?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이 일단 중단되면서 광주은행 민영화 재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영화 중단 이유=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민영화 추진을 중단했다.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우리금융컨소시엄이 입찰을 포기한데다 예비입찰에 참여 의지를 밝힌 보고펀드, 칼라일펀드 등 국내외 사모펀드 4곳 중 3곳이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되고, 나머지 1곳도 자금조달 방안이 불확실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금융 전체 지주사의 유효경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한 분리매각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전망=정부가 새롭게 제시할 민영화 방안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는 시장 상황과 조기 민영화를 고려한 유연한 매각방식이 유력하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금융지주와 별도로 분리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7곳과 5곳이 인수 의사를 밝힌 만큼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력한 인수 후보자들인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된 광주은행 인수추진위를 비롯해 전북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은 분리매각을 요구하며 광주은행 인수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금융의 기업가치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분리매각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매각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우리금융지주 전체에 대한 블록세일이나 수의계약 등도 유력한 민영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블록세일은 정부 보유 지분 56.97% 중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대량으로 파는 것이다.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대형 블록세일을 원했던 우리금융 측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는데다 주식을 시가보다 할인 매각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지키기 어렵고, 4차례에 걸친 블록세일을 통해 26.7% 지분을 파는 데 6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조기 민영화 방침에도 어긋난다.

수의계약은 특정 투자자와 협상을 해 지분을 파는 방식을 말하며 이 경우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로또복권** (제420회)

| 당첨번호 | | | | | | 2등보너스 숫자 |
|---|---|---|---|---|---|---|
| 4 | 9 | 10 | 29 | 31 | 34 | 27 |

| 등 위 |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 1 | 6개 숫자 일치 | 1,424,856,375 | 8 |
| 2 |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 54,280,243 | 35 |
| 3 | 5개 숫자 일치 | 1,600,513 | 1,187 |
| 4 | 4개 숫자 일치 | 50,000 | 62,929 |
| 5 | 3개 숫자 일치 | 5,000 | 1,065,564 |

| 지표 | 수치 |
|---|---|
| ▲ 코스피지수 | 2,026.30 (+17.06) |
| ▼ 코스닥지수 | 510.74 (-0.97) |
| ▲ 금리 (국고채 3년) | 3.36% (+0.01) |
| ▲ 원·달러 환율 | 1,152.90원 (+0.30) |

※수치는 17일 기준 1주전과 비교

2010년 국가직/ 지방직 수탁출제에 따른 수험전략/ 채용인원현황/ 바뀌는 시험정보/ 조기합격을 위한 수험대책/ 국가직,지방직 시험일정 및 거주지 요건정리
공무원 합격설명회
2010년 12월 27일(월) 14:30~ (사전예약접수 중)
참석자 전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증정/ 고급노트증정 종합반교재 5권 20만원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타 학원 공무원 합격설명회 다 들어보시고, 학원선택은 반드시 비교후 소문듣고 선택하십시오! 고시학원의 대세는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합격은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개강 1월 3일